

동아리 활동이 학습동기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 학생을 중심으로)

강현숙* · 김 정
수원여자대학 치위생과

Influence on Academic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by Dong-A-Ry Activity (in students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un-Sook Kang^{*} and Jung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uwon Women's College, Gyunggi-do 441-748,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influence on academic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by Dong-A-Ry activity in students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motivation and Dong-A-Ry activity was found to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lpha < 0.05$ in analysis of variance, which shows that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re significantly high. 2.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and Dong-A-Ry activity was found to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lpha < 0.05$ in analysis of variance, which shows that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re significantly high. 3.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tudents obtain the experience of group activity which is difficult to approach by regular curricular activity. As a result, to improve the highly motivated study and the better satisfaction in college life, Dong-A-Ry activities are needed. And Dong-A-Ry activity can be efficiently facilitated by active participants, efficient program development, facilitator's leadership and so on.

Key words Academic motivation, Dong-A-Ry activity, Analysis of variance

서 론

최근 우리사회는 개인소득의 증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의학기술의 발달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개념도 의료행위의 본질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서비스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였다^{1,2)}. 또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과거의 시혜적 관점에서 오늘날에는 경제적 향상과 소비자 운동의 발달 등으로 인해 수평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3,4)}. 특히, 치과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첨단화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면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 치과위생사들로 하여금 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윤리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임상현장뿐만 아니라 보건소, 보건지소, 학교, 유치원 등 지역사회기관들을 통한 구강보건증진 및 관리

역할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학생들 스스로가 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중심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7,8)}.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정규교과목으로 일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그 정도가 미흡하고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낮아 이를 대처할 만한 학습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9,10)}. 그러므로 정규시간 이외의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대학생활의 시간들을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개발의 다양한 여가활동들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이며, 이러한 활동은 태도 변화와 정체감 형성의 성장기간에 있는 대학생들의 행복, 신체적 건강, 우정 등의 발달을 고취시키는 캠퍼스의 유용한 자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아리 활동이 소극적이고 비활동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정규교육과정으로 성취하기 힘든 창의적 영역의 영위를 위한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아리활동 등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특히 학교생활적응과 학습동기 부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각하며, 이러

이 논문은 2005년도 수원여자대학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Tel: 031-290-8118
Fax: 031-290-8142
E-mail: khs@swc.ac.kr

한 동아리 활동이 학습동기와 학습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관계자로 하여금 동아리활동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학생에 접근하는 마케팅 전략과 교육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항목들에 대한 용어의 적절성, 질문의 순서, 설문지의 구성 등이 검토되었다.

연구의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5년 6월 18일부터 7월 12일까지 25일간에 걸쳐 개별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약 3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98부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것을 제외하고 총 154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습동기의 유형은 김용래의 학습동기에 대한 분석내용을 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¹⁾. 특히, 일반동아리 활동 응답자는 총 46부로 나타났으나, 이 중 44부의 응답자들이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 이들은 인구통계적 설문에는 성실히 응답하였으나, 본 설문에서는 불성실하게 응답하였으므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의 분석과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개별항목과 전체항목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들이 척도의 신뢰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

하기 위하여 알파계수(alpha if item deleted)를 사용하였다.

한편 타당성(validity)분석은 전문가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의 어귀 및 의미의 명료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정도의 문항을 취합하였다.

연구의 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인지하는 학교생활 만족의 구성요인과 각각의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학교생활만족의 구성요인과 학습동기를 측정하였다.

학습만족도와 학습동기는 요인별로 적재된 평균값을 이용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측정문항을 요인분석한 후, 요인으로 적재된 문항들의 평균값을 측정변수로 사용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다수의 설문문항을 소수의 차원으로 축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요인점수나 요인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이다²⁾. 그러나 본 분석에서 불성실응답과 데이터결손에 따른 설문지 약 44부 정도가 일반동아리 활동 응답자에서 발생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특성

설문지를 통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동아리 형태는 전공동아리 가입의 비중이 일반 동아리와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학교와 집간의 통학시간에서는 1시간-2시간의 시간적 거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의 성적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났다. 학년을 묻는 설문에서는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of investigator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
Shape of Dong-A-Ry	Course Dong-A-Ry	96	62.3
	Common Dong-A-Ry	2	1.3
	Inactivity	56	36.4
Housekeeping harmony	Extraordinary	62	40.3
	Superiority	64	41.6
	Commonplace	28	18.2
Attending school time	Less than 1hr	54	35.1
	1hrs - 2hrs	82	53.2
	2hrs - 3hrs	18	11.7
Grade	1	60	39.0
	2	44	28.6
	3	50	32.5
Course selection	In person	80	51.9
	Parents	46	29.9
	Others	6	3.9
Course selection	Friends	6	3.9
	Relatives & neighbors	16	10.4
	Others	6	3.9
Total		154	100.0

Table 2. Corelation between Dong-A-Ry shape and variables

		Course Dong-A-Ry	Common Dong-A-Ry	Inactivity	F value	Significance level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2.8438(0.5952)	3.7500(0.0000)	2.4643(0.7284)	8.715	0.000
	College satisfaction	2.9722(0.8030)	3.0000(0.0000)	2.5476(0.7744)	5.162	0.007
	Schooling motivation	3.3854(0.4672)	3.0000(0.0000)	2.8839(0.5896)	16.998	0.000
Academic motivation	Continuing motivation	3.3385(0.3609)	3.0000(0.0000)	2.8214(0.5345)	25.540	0.000
	Extrinsic motivation	3.7292(0.4697)	3.0000(0.0000)	2.9821(0.6939)	32.058	0.000
	Intrinsic motivation	2.5625(0.6777)	2.0000(0.0000)	2.4643(0.7854)	0.864	0.423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전공 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의 권유가 그 뒤를 이었다.

2. 각 요인의 분산분석

1) 동아리 유형

동아리 유형과 각 변수간의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서와 같다. 만족도 구성을 대분류로 나누어보면 일반(삶)만족 요인, 학교만족 요인 등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 2가지 요인 모두 동아리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만족 요인, 학교만족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각각 8.715, 5.162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00 < \alpha = 0.05$, $0.007 < \alpha = 0.05$ 이므로 만족도 구성요인은 동아리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습동기 구성요인 중에서는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 비본질동기 요인 등 3가지 요인이 동아리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 비본질동기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각각 16.998, 25.540, 32.058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00 < \alpha = 0.05$, $0.000 < \alpha = 0.05$, $0.000 < \alpha = 0.05$ 이므로 학습동기 요인 중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 비본질동기 요인 동아리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질동기 요인은 F 통계량 값에 따른 유의도가 $\alpha < 0.05$ 의 회귀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리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동아리를 교과외 활동이 아니라 수업의 연장으로 보는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치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직업기초능력, 다양한 전문능력 및 응용력을 모두 갖추기를 원하고 있어 교육자원의 질과 기대하는 교육산출과의 간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이 교과활동으로는 성취하기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한 면을 달성시켜주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긍정적 자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동아리 활동이 학습의욕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공선택의지

전공선택과 각 변수간의 분산분석의 결과는 <Table 3>에서와 같다. 만족도 구성요인 중에서는 학교만족 요인만이 전공선택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 통계량 값은 각각 6.448이고 이에 따른 유의도가 $0.000 < \alpha = 0.05$ 이므로 만족도 구성요인 중 학교만족 요인만이 전공선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만족 요인은 F 통계량 값에 따른 유의도가 $\alpha < 0.05$ 의 회귀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선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학습동기 구성요인 중에서는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 등 2가지 요인이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 등 2가지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각각 3.818, 7.258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06 < \alpha = 0.05$, $0.000 < \alpha = 0.05$ 이므로 학습동기 요인 중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은 전공선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본질동기 요인과 본질동기 요

Table 3. Corelation between Course selection and variables

		In person	Parents	Friends	Relatives /neighbors	Others	F value	Significance level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2.7125(0.5994)	2.7935(0.6938)	2.7500(0.7746)	2.5938(0.8750)	2.5000(0.9747)	0.432	0.786
	College Satisfaction	2.9750(0.8663)	2.9275(0.6882)	1.8889(0.7503)	2.3750(0.3626)	2.0000(0.2981)	6.448	0.000
	Schooling motivation	3.3625(0.5215)	3.0109(0.5700)	3.0000(0.3873)	3.0625(0.6158)	3.0000(0.5916)	3.818	0.006
Academic motivation	Continuing motivation	3.3125(0.3846)	3.0000(0.5110)	2.5000(0.4472)	3.0625(0.5590)	2.9167(0.6831)	7.258	0.000
	Extrinsic motivation	3.5500(0.5824)	3.4130(0.7839)	3.0000(0.8944)	3.3750(0.5627)	3.0000(0.4472)	1.962	0.103
	Intrinsic motivation	2.6000(0.7730)	2.3473(0.6400)	3.0000(0.0000)	2.5000(0.7303)	2.3333(0.5164)	1.726	0.147

인 등 2가지 요인은 F통계량 값에 따른 유의도가 $\alpha < 0.05$ 의 회귀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선택 의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위의 결과를 통해 전공선택 의지는 삶의 만족과 학교 만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동기에 있어서 수업동기와 계속동기의 요인은 본인의 의지와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 동기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는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사료된다.

3) 기타요인(결과 표 미기재)

경제형편과 각 변수간의 분산분석의 결과, 학교만족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4.909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09 < \alpha = 0.05$ 이므로 만족도 구성요인 중 학교만족요인은 경제형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습동기 구성요인 중에서는 비본질동기 요인과 본질동기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각각 4.301, 3.790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15 < \alpha = 0.05$, $0.025 < \alpha = 0.05$ 이므로 학습동기 요인 중 비본질동기 요인과 본질동기 요인은 경제형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가정화목도와 각 변수간의 분산분석의 결과, 일반만족 요인과 학교만족 요인의 F 통계량 값에 따른 유의도가 $\alpha < 0.05$ 의 회귀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화목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학습동기 구성요인 중에서는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과 비본질동기 요인 등 3가지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각각 5.439, 5.461, 7.648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05 < \alpha = 0.05$, $0.005 < \alpha = 0.05$, $0.001 < \alpha = 0.05$ 이므로 학습동기 요인 중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과 비본질동기 요인은 가정화목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통학시간과 각 변수간의 분산분석의 결과, 일반만족 요인과 학교만족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각각 4.465, 7.462이고 이에 따른 유의도가 $0.013 < \alpha = 0.05$, $0.001 < \alpha = 0.05$ 이므로 만족도 구성요인 중 일반만족 요인과 학교만족 요인 등 2가지 요인 모두 통학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습동기 구성요인 중에서는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과 비본질동기 요인 등 3가지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각각 5.295, 4.861, 4.017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06 < \alpha = 0.05$, $0.009 < \alpha = 0.05$, $0.020 < \alpha = 0.05$ 이므로 학습동기 요인 중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과 비본질동기 요인은 통학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년과 각 변수간의 분산분석의 결과, 학교만족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4.651이고 이에 따른 유의도가 0.011이므로 만족도 구성요인 중 학교만족 요인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습동기 구성요인 중에서는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 비본질동기 요인 등 3가지 요인의 F 통계량 값은 각각 19.526, 26.453, 29.503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가 $0.000 < \alpha = 0.05$, $0.000 < \alpha = 0.05$, $0.000 < \alpha = 0.05$ 이므로 학습동기 요인 중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과 비본질동기 요인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The attitude of a college student about meaning of Dong-A-Ry activity

Characteristics	Mean	SD
Man-power development of oneself	3.92	0.70
Improvement of leadership	3.62	0.78
Knowledge improvement in related field	3.92	0.66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ollege life	3.647	0.705
Amicable human relationship	3.96	0.62
Preliminary social experience	3.66	0.90
Leisure and hobby development	3.74	0.92
Self-confidence about the new world	3.65	0.93
Capability of a problem-solving ability	3.49	0.56
Spiritual compensation	3.18	0.74
Physical compensation	3.04	0.94
Personality accomplishment	3.98	0.56
Volunteer work	3.63	0.96
Creation of knowledge	3.92	0.68

3. 이상적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과거의 여가선용, 취미개발, 원만한 인간관계 등의 중요성보다는 예비사회경험, 관계분야에 대한 지식함양 등 본인이 전공한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의 한 부분으로서 동아리 활동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분야를 실제적으로 봉사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습과 연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동아리의 활동 방향을 교과의 학습활동을 통한 지식 창출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활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취미나 관심 분야에 대한 개인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교과의 활동의 개념이 아닌 수업시간에 배운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실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업의 연장의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경기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이 학습효과와 학교생활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 3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방식에 의해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동아리 활동을 살펴보면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통학시간 및 성적 등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아리 활동이 미치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경제형편, 통학시간, 성적 및 전공선택의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동아리 활동은 학습동기 구성요인 중 수업동기 요인, 계속동기 요인, 비본질동기 요인, 본질동기 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본질동기 요인은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4.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분야를 실제적인 적용의 한 부분으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 김수배, 김춘득: D병원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대학병원협회지 203(4): 41-42, 1993.
2. 김광미: 의료서비스의 성과와 소비자 만족.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3. 박창기, 김공현, 김인경, 김용완: 환자가 인지하는 병원의 의료기술 외적 서비스가 환자의 병원 재이용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병원협회지 196(7): 24, 1992.
4. 오태형: 병원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5. 이기춘, 조희경: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 불만해소행동 및 제구매의도. 한국소비자협회 7: 87-89, 1996.
6. 조희만: 의료기술외적 병원서비스가 고객만족불만족에 관한 실증 연구. 계명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7. Bebeau MJ, Tomas SJ: The impact of a dental ethics curriculum on moral reasoning. J Dent Edu 65: 12-14, 1994.
8. Jong A, Heine CS: The teaching of ethics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J Dent Edu 46(12): 699-702, 1982.
9. 박광량: 조직학습, 학습조직, 그리고 학습인.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21C북스, pp.71-101, 1996.
10. 이해주: 여성사회교육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성과 networking. 한국여성사회교육회, pp.104-126, 2000.
11. 김용래: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요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12. Linda LP, Amould EJ, Sheila D: Service provider influence on consumers' emotional responses to service encoun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Industries Management 6(3): 34-61, 1995.

(Received November 7, 2005; Accepted November 26, 2005)

